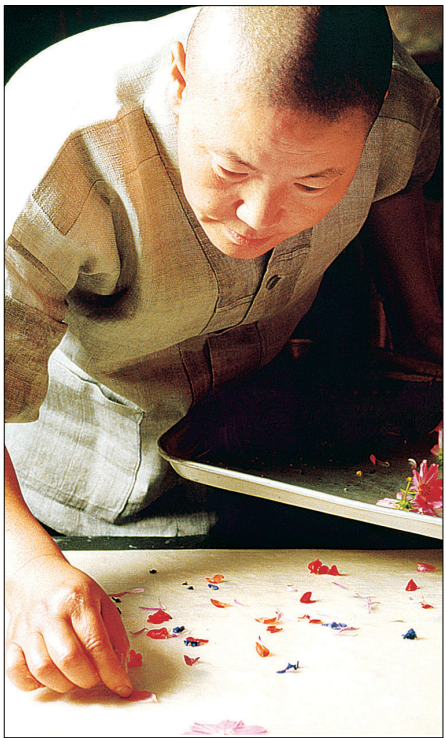


# 한지 위에 펼쳐진 '자비무량불'의 감동

영담 스님 제 10회 개인전... 10월 29일~11월 4일 인사동 KCDF갤러리서



영담 스님이 꽃잎 종이를 만들고 있다. 영담한지 박물관장 영담 스님의 제 10회 개인전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 10월 29일~11월 4일 인사동 KCDF갤러리에서 열린다.

“외발 뜨기 한 번 물질해 발에 얹혀 지는 종이바닥은 한 세계요, 한 울의 닥섬유는 사바의 두두물물이다. 열키고설킨 닥섬유가 수십번의 물질로 겹겹이 쌓여 한 장의 종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연기법계를 보여준다. 페러야 뿔 수 없는 삶의 외연들과 내면의 신화가 조화를 이루어 서로 품으며, 자연물감과 어우러져 또 한 세계를 연출하는 자연 앞에서는 지휘자로 때론 방관자로 물질과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영담 스님에게 있어 한지는 무한한 우주이고 한없이 평화로운 자연이 된다. 영담한지박물관장 영담 스님이 제 10회 개인전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연다. 10월 29일~11월 4일 인사동 KCDF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법장, 자비무량불 등 한지에 자연물감으로 그려낸 18작품을 선보인다.

스님은 35년을 한지 연구에 몰두 전

통 기법에 근거한 스님만의 독특한 한지를 만들어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법장'은 종이를 귀하게 여겨 일컫는 말이다. "법장에 부처님 말씀인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가지. 진리의 말씀을 펼쳐지는 곳이라고 바로 법장입니다. 그러니 이 종이야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천수경에 '개법장진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법장을 여는 진언이라는 말이지요. 옛 어른들은 종이를 뜯 때 천년만년 보존하기 위해 상사화의 즙을 펴서 만들었어. 꽃물이 독하지만 그래도 오래가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쏟았죠.”

그래서 스님은 현대인들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종이를 무작정 사서 사경을 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조상님들은 일부터 닦나무를 키워 종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종이를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그렇게 만든 종이 위에 사경을 하면 얼마나 신심이 돌겠어요? 빠른 것을 추구하는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종이

를 귀하게 여기던 조상들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자비무량불'은 관세음보살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스님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하지만 스님이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을 뜻하는 '삼신불'이다. "자비무량불은 말 그대로 자비가 무량하다는 뜻이

35년 한지 연구, 작품으로 승화 '법장' 등 불법의 세계 담아내 12명 작가 참여 3회 국제한지전도

죠. 이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온화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장사라는 말이죠. 퍼쥬도 퍼쥬도 마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가 자비예요.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이 구축되어 원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이 사람 사람마다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한지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부처님 깨달음의 도리도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생사윤회의 끝없는 흐름이 있지만 그 주제인 마음에 매이지 말고 자유자재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법의 이치죠. '저절로'라는 말이 줄어 절이 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작위적인 것이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서 자연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마음의 평화가 오죠. 그 자연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한편, 스님은 개인전과 함께 제3회 국제한지전도 개최한다. 영담 한지로 작품을 만든 국내외 작가 12명이 참여, 작품 24점을 함께 선보인다. 영담 스님은 내년 필라델피아에서도 개인전과 국제한지전을 동시에 갖는다. 010-2535-358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무한한 자비의 의미를 담아낸 '자비무량불'

## 민족통일 서원하는 '음성공양'

불교총지중 제4회 통일음악제 10월 25일 부산KBS홀서



제4회 통일음악제 10월 25일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음악회 장면.

제4회 불교총지중 통일 음악 예술제가 10월 25일 오후 2시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마음의 평화를 통한 화합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남북 화합은 물론 다문화 가정, 새터민, 부산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법음으로 하나 되기를 서원하는 예술제다.

음악회에는 대만의 아모라라다와 바나 이나기오 등 국제적인 명상음악가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또한 베트남 레민홍, 중국 팡려영, 티베트 카락빠체링, 위드오 케스트라 등이 공연을 펼친다.

총지중 통리원장 법등정사는 "지난해

서울 국립 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개최된 제3회 공연에 이어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제4회 음악회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불교 총지중은 통일음악예술제를 통해 북녘의 동포들과, 다문화가정, 새터민, 부산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법음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지중도 및 다문화가정, 새터민, 부산시민, 불교계 주요 귀빈,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 연극으로 만나는 구도와 깨달음의 세계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10월 25일~11월 2일 국립극장서

한국 최고의 명품비인 극작가 이만희와 연출가 강영걸이 만든 첫 번째 히트작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2014년 새롭게 관객들을 찾아온다. 극단 완자무늬가 10월 25일~11월 2일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올린다. 연극은 조각가 출신 스님이 빈뇌에서 벗어나고 수행의 방편으로 불상을 만들면서 겪는 구도와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인간과 예술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떠나아가서는 종교를 떠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있다.

이 작품은 1990년 초연 당시 서울연극

제 작품상, 백상예술대상, 삼성문예상을 휩쓸며 지금까지도 국어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공연, 정통리얼리즘 공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연극인들의 교과서 같은 연극으로도 손꼽힌다.

정진, 이문수, 명계남, 민경진 등 연극계의 중견배우들과 최광일, 박민정, 김윤경 등의 젊은 배우들이 합류한다.

특히 극단 완자무늬의 창단멤버이기도 한 배우 명계남이 망령 역을 맡으며 그만의 깊이와 입체적인 해석의 연기로 시월의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티켓은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이다. (02)2272-2152

정혜숙 기자



한국 최고의 명품비인 극작가 이만희와 연출가 강영걸이 만든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10월 25일~11월 2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열린다.

## 인연 따라 오가는 풍경 렌즈에 담아

손민의 '다르마' 10월 22일~28일 토포하우스

여수 향일암과 인도 미얀마 등 불교의 자취를 렌즈로 담아낸 '다르마'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손민의 사진전 '다르마'가 10월 22일~28일 토포하우스 아트센터 1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국내외를 여행한 다양한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고 가기에 제가 만난 불교와의 인연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작품의 제목을 달지 않은 것은 관객들이 어떤 고정된 틀에서 매이지 말고 각자의 느낌대로 제 작품의 풍경을 담아가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작가는 터키를 담은 다양한



개인전 '다르마' 여는 손민의 작가의 작품

사진들도 선보인다. 특히, 작가는 이번 전시와 함께 <이스탄불이 그리워지면>이라는 제목으로 터키 여행을 관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02)734-7555

정혜숙 기자

## 동휘 스님 호국대법회 '열려라 대한민국'

해피만다라 동휘 스님이 10월 25일 강원도 홍천 여래사에서 호국대법회를 연다. '열려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무궁화가 활짝 피어 빛을 내뿜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피불, 해피만다라 등을 그리며 전시

회를 열어 빛의 중요성을 전해왔던 스님은 이번 행사에서 호국대법회 금광명경기도 대축전 등으로 빛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엔틱 무궁화 작품과 동휘 스님의 무궁화 '옴' 등 이색 미니멀 전시회도 준비된다.

정혜숙 기자

##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수미단, 단집, 영단, 법상, 경탁 등 법당장엄 일체 제작 각종 법당불사 컨설팅 해 드립니다.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